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홍준표 “누가 뭐래도 윤석열은 상남자… 아내 지키려 하이에나 떼 저지”

관련기사 2면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남자 중 남자)라며 치켜세웠다. 홍 시장은 14일 SNS를 통해 야권이 윤 대통령을 향해 △ 검찰 수뇌부 인사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막으려는 방탄용 △ 수탈막 인사(수사를 틀어막으려는 인사) △ 방탄 신호탄 △ 답은 김건희 여사 특검뿐이라며 공세를 펼친 것에 대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고 주장했다.



오늘의 지면

- 홍준표, 윤 대통령 옹호 2면
- 경북 농업대 전환 들녘특구, 이젠 특화작목 3면
- 포항불빛축제 준비 순항 4면
-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 절대적 6면

홍준표, “아내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 생명·재산 지킬 수 있나”

‘김건희 여사 방탄’ 논란 적극 두둔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주며 나 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 까지 시켜 주는 바람에 수십억 국고낭비 했지만 멀쩡하게 잘살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여사 조준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대통령을 옹호했다.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를 놓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하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건 방탄이 아니라 상남자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들, 대검찰청 참모들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주가 조작 의혹 등의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창수(사법연수원 30기) 전주지검장이 보임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주지검장이 임명된 것을 두고 “성남 FC 사건을 진두지휘한, 최일선에서 야당 탄압의 선봉에 섰던 친윤 라인”이라며 “검찰을 더 세계 틀어쥐고 김건희 여사 방탄에 나서겠다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영부인에 대한 수사를 원천봉쇄하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인사”라고 했다.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반발포문을 썼다. 이 글에서 홍 시장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며 “나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중이고 불명확한데 자기 여자를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라고 했다.

홍 시장은 글에서 ‘너’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1시간여만에 ‘당신’으로 고쳐졌고, 다른 반발 표현도 모두 경어체로 수정됐다.

글에서 홍 시장은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내주며 나 홀로 인도 타지마할 관광까지 시켜 주는 바람에 수십억 국고를 낭비했지만 멀쩡하게 잘



살고 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조준했다.

그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후보시절 장인의 좌의 경력이 문제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 했는지 한번 보라”며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이 사안에 잇달아 발언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지금 수사가 시작됐는데 누가 온다고, 검사장이 바뀐다 해가지고 수사가 중단되겠나, 왜곡되겠나”라며 “이게 불가능한 구조”라고 말했다.

홍석준 의원은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동안 보장이 되는 것이고 검찰총장 이하 검찰의 인사는 수시로 있어 왔는데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사실은 그동안 대규모 검찰 인사는 거의 하지 않아서 오히려 지금 검찰 인사 시기가 좀 지났다고도 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홍준표 언어도단...왜곡된 자기정치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

자’라고 옹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를 한다”며 “미래의 대권 후보는 윤심, 김심이 아닌 민심이 키워낸다”고 지적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삼김시대에도 없던 권력의 사유화가 ‘윤석열 상남자’, ‘김건희 일김시대’에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도마 위에 오른 건 홍 시장의 발언이다. 홍 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향한 야권의 ‘김건희 여사 방탄용’ 비판을 두고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라고 반박했다.

홍 시장은 “당신이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중이고 불명확한데 자기 여자를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라며 “역지사지해 보라”고 쏘아붙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홍 시장은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라는 어불성설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재했다”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홍 시장의 언어도단은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자기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사과 인사까지 개입하고 있다는 국민적 의혹을 확인시켜 분노를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 시장의 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

이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고 아내를 방탄하는 ‘조선의 사탕꾼’이 되는 건 권력의 사유화에 불과하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내 지키기, 자기 여자 지키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은 상남자는 커녕 ‘하남자’, ‘하수인’”이라며 “윤심, 아니 김심에 눈도장이라도 찍으려다 민심에 찍힌다”고 경고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아내의 범죄 의혹을 감추느라 급급하는 대통령, 그런 대통령을 상남자라 치켜세우는 여당은 오직 특검만이 답임을 알려준다”고도 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관철해 윤 대통령이 무너뜨리고 사유화한 법과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들께 되돌려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이 하이에나 떼란 거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5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건희 여사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을 교체한 검찰 고위급 인사를 두둔한 데 대해 “국민들이 하이에나 떼들이라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번 표현은 도저히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된다. 워딩 하나하나가 부적절하다”며 “하이에나 떼들이면 그러면 야당입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수사가 필요하다, 특검이 필요하다는 대다수 국민들이 하이에나 떼입니까”라고 반문했다.

홍 시장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

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000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나? 나라면 범법 여부가 수사중이고 불명확한데 자기 여자를 제 자리 유지하겠다고 하이에나 떼들에게 내던져 주겠나?”라며 “그건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의 상남자의 도리”라고 했다. 검찰 인사에서 김 여사 사건 담당 지휘부가 전원 교체된 직후 나온 발언이다.

한 대변인은 “검찰에서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번 검찰 인사는) 그걸 놓고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선 직후 대통령과 4시간 정도 같이 식사하셨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그 이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다소 듣기 거부할 정도로 공격을 해내고 있다”며 “공직자로서 마인드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번 인사에 대해 7초의 침묵으로 답을 대신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자괴감을 느꼈을 것 같다”며 “표현은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배신감도 느끼지 않았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 대변인은 “김 여사에 대한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를 철저히 하라 이런 지시가 나오고 소환조사 얘기가 나오니까 교체했다”며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거나 본인들과 뜻이 다르게 수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마저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 방탄을 위해 친윤 검사수속도 자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여은 기자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www.dgy.co.kr 전자우편: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속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 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법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임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도전하는 청년

활기찬 노후

꿈을 키우는 아이

쾌적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행복한 가정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DAEGU 대구광역시



2023년 우수 부서 시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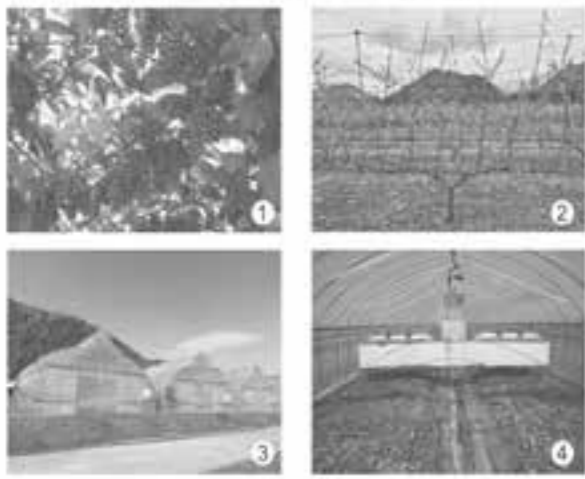


2023년 우수 시군 시상

경북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이젠 특화작목...

경북 농업예산 2년 연속 1조원대
경북 대표 특화작목 참외, 복숭아
오미자, 고추 '들녘특구' 4곳 선정
경주시·의성군, 농업정책 최고...

<경북 농업대전환 특화작목 들녘특구 신기술>



1. 스마트 오미자 들녘특구 스마트 관개 시스템
2. 스마트 복숭아 들녘특구 스마트 온실
3. 스마트 고추 들녘특구 스마트 온실
4. 스마트 참외 들녘특구 스마트 온실

경북 들녘에 농업대전환 특구바람이 불고있다. 기후위기·인구감소·디지털전환 같은 급박한 변화는 농업·농촌에도 시대적 대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때문에 격변하는 사회 속 미래에 대비한 농업의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식량작물 규모화를 통한 공동영농과 특화작목 R&D 기술혁신을 통한 정밀 영농으로 경북 농업 대전환 모델을 다양화 한다"고 밝혔다. 그는 "농업 대전환은 돈 되는 농사를 통해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혁신적인 대응법으로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농업 예산 1조원 시대

경북은 농도 1번지다. 경북도는 2024년을 첨단·규모화, 기술혁신이라는 세가지 혁신 가치에 중점을 두고 농업정책을 펼친다.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한 농업대전환의 시대다. 경북도는 '미래형(다축형) 사과원'으로 대대적 생산구조를 개편, 사과농업의 혁신을 이루고 있다. 다축형 사과원은 줄기 여러 개가 평면으로 자라 열매에 골고루 햇빛을 쬐 수 있고 농기계 동선도 확보할 수 있는 다축형 사과나무를 재배하는 과수원이다.

다축형 사과원을 확대, 또 한 번의 과수혁명을 꿈꾼다. 도는 농촌의 난개발·농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농촌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농촌공간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무엇보다 선도농업인의 핵심 생산기술과 유통비법을 공유, 기술혁신과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멈춤 없는 농업혁신을 하고 있다.

농업분야에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는다. 2년 연속 농업 예산 1조원 시대를 이어가며 '경북농업 대전환'에 속도가 붙고 있다. 도는 2024년 농축산유통국 소관 사업에 지난해 대비 130억원 증가(1.3%)한 1조481억원을 투입한다. 도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 11조1193억원의 9.4%를 차지하는 액수다. 도는 '경북농업 대전환' 3년차를 맞아 △농가 소득·경영 안정망 구축 △농식품 수출 확대 △스마트·친환경농업 육성 △원예·특작시설 현대화 △농촌개발·기반 정비 △축산·동물방역 강화 등 6개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자한다.

■기업형 농산업을 발돋움

경북도 농업대전환 들녘특구가 개별 영농에서 기업형 농산업을 발돋움한다. 식량작물을 기반으로 규모화 공동영농을 통한 소득증대와 경북형 농산업 혁신모델의 비전을 선보인 농업대전환 '들녘특구' 프로젝트. 특화작목을 기반으로 한 R&D 기술혁신 농업대전환으로 확대된다. 지난해부터 2년간 추진되고 있는 들녘특구는 규모·기계화를 통해 식량작물 이모작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지역별 마을 자원과 연계한 6차산업 고도화를 통한 1특구-1특화마을 혁신모델 4개소(포항·경주·구미·울진)를 추진하고 있다. 특구별 농지를 100ha 이상 규모화하고 벼농사 일모작에서 콩과 밀, 벼와 조사이 등 이모작으로 전환해 생산 소득을 기존 벼농사(2,000원/3.3m²)보다 2배 이상 높였다. 가공·유통 등 6차산업 적용으로 농가 소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금은 참여 농가에 추가 배당한다. 올해는 들녘특구 모델 다양화와 새로운 소득증대 모델을 구축한다. 경북 대표 특화작목에 정밀영농 신기술을 적용한 생산성 향상 모델로 문경 오미자, 경산 복숭아, 영양 고추, 철곡 참외 등 특화작목 들녘특구 4개소를 추가 조성한다. 특화작목 들녘특구로 선정된 작목은 경북 대표 특화작목

으로 참외는 재배면적 4000ha에 생산량 18만8000톤으로 전국의 94%를 차지한다. 복숭아는 1만ha에 10만1000톤 생산으로 전국 53%, 오미자는 1000ha에 3000톤으로 전국 51%, 건고추는 8000ha에 1만 7000톤으로 전국 25%를 점유하고 있다.

■농업대전환 새로운 모델 구축

특화작목 들녘특구에는 경북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에서 개발한 신기술이 적용된다. 정밀영농과 기술혁신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 2배 달성으로 경북 농업대전환의 새로운 모델을 구축한다. 문경 오미자 들녘특구에는 서리 및 저온 피해에 강한 품종으로 봉화약용작물연구소 개발 신품종 '썬레드'를 보급한다. 특허등록된 친환경 생분해 유인망 보급으로 유인망 제거 노동력 90% 이상 절감을 통해 생산성을 1.7배 향상시킨다. 경산 복숭아 들녘특구는 최근 사과를 중심으로 새로운 기술로 확산되고 있는 다축형 평면 재배 방식을 복숭아에 도입한다.

스마트 무인방제 등 생력화 기술을 적용한 모델로 청도복숭아연구소와 현장실증연구를 통해 전정 등 노동력을 30% 절감하고, 생산성은 2.3배 향상시켜 나간다.

철곡 참외 들녘특구는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에서 개발한 참외 포복형 양액재배 기술을 적용한다.

전국 최초로 특허 등록된 담배가루이 포획기를 활용해 고온기 가장 문제가 되는 해충인 담배가루이를 친환경적으로 방제, 방제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성이 1.8배 이상 향상되는 모델이다.

영양 고추 들녘특구는 ICT를 적용한 스마트 공동육묘와 영양고추연구소에서 개발한 총채벌레 종합방제체계를 적용한다.

육묘기부터 칼라병에 안전하고 균일한 고추묘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마기뿐만 아니라 고온기에도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고갈형 하우스 비가림 재배를 통해 생산성을 3.3배 향상시킨다. 경북농업기술원은 지난 8일 특화작목 들녘특구 추진 업무협약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특구 조성에 들어갔다.

농업기술원 특화작목연구소·시군농업기술센터·특구단지 협의체를 구성했다.

특화작목별 R&D 신기술 집중 기술지원으로 경북 농업대전환의 새로운 소득증대 모델을 만든다.

■경주시·의성군, 농업정책 최고

지난해 경북에서 '지방시대 대전환' 정책을 가장 잘 시행한 곳은 경주시와 의성군이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도는 2023도정성과 우수시군 및 우수부서에 시상했다. 2023년도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 결과 도정의 핵심 시책이었던 '지방시대 대전환'을 가장 성공적으로 추진한 곳으로 경주시, 의성군 등 9개 시군과 농업정책과 등 9개 부서가 선정됐다.

시군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국정과제 주요 지표로 구성된 정부합동평가 실적과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 민선 8기 도정 역점시책 추진실적을 합산해 이뤄졌다.

부서평가는 도청 내 108개 부서들을 대상으로 부서를 대표하는 423개의 성과지표에 대한 정량평가에 신규시책 개발, 규제 개선 등에 대한 정성평가를 더했다.

도는 약 3개월간의 자료수집과 성과분석, 정부 공식 통계자료와 비교·검증을 거쳐 우수시군과 우수부서를 선정한 후 경북도 성과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우수 시군과 부서를 확정했다.

시군평가 최우수 시군에는 경주시와 의성군이 선정됐다. 경주시는 정부합동평가의 지역경제와 지역혁신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영유아 ADHD(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치료 지원, 24시간 영유아 응급진료센터 등 안심할 수 있는 임신·출산 환경 조성, 해안길 비치코밍, 잔반제로 계몽운동과 같은 자원봉사 활성화 부문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의성군은 정부합동평가의 지역개발과 문화체육, 환경산림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코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다함께돌봄센터가 교육부의 방과 후 돌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뛰어난 행진력을 보였다.

부서평가에서는 농업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끈 농업정책과가 차지했다.

농업정책과는 저출생과 고령화, 인력유출까지 삼중고에 직면한 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가주주형 공동영농모델인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조성하고 작년 첫 수확을 했다.

문경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은 전년 대비 3배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성공사례를 창출하며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표준모델을 정립해가고 있다는 평가다.

시상식에서는 대형 국책사업이나 국비예산을 많이 확보했던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던 과거와 달리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 들녘특구, K-U시티 프로젝트 등과 같은 경북만의 정책을 구상하고 시행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이철우 지사는 "올해 도정의 핵심 어젠다는 '저출생과 의 전장'이라며 "지금까지 없었던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들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대역사를 함께 써가자"고 당부했다. 김성용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24 포항국제불빛축제...1천 대 드론 밤하늘 수놓는다

포항의 매혹적인 야경에 빛의 향연을 더하는 축제 불과 빛의 이색적인 만남



포항시가 성공신화를 쏘아올리는 포항국제 불빛축제에 행정력을 총동원 하고있다.

포항에서 펼쳐지는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지난 20여년 간 사랑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축제 추진을 위해 항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려해준 시민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전국3대 불꽃축제인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영일대 해수욕장 야경과 동해안 풍경을 배경으로 국내&해외 유명불꽃팀이 참가하는 국제불꽃쇼의 불빛판타지를 선사한다.

'불과 빛의 도시' 포항에서는 해마다 대표적인 문화관광축제 '포항국제불빛축제'가 열린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세계적인 철강 도시 포항을 상징하는 '빛'과 뜨거운 용광로를 상징하는 '불'의 이미지를 주제로 2004년 포항시민의 날을 기념해 불꽃쇼를 개최한 것이 시작이다.

국제규모 축제행사로 확대, 해외 유명한 불꽃팀들이 매년 참가하고 있다.

축제콘텐츠도 단순한 '불꽃'중심에서 탈피, 제작 공연과 불빛 퍼레이드 등 산업과 문화적 요소를 융합해 다채롭게 펼쳐지는 화합의 축제이다. 사실상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돌아왔다.

포항의 매혹적인 야경에 빛의 향연을 더하는 이 축제는 불과 빛의 이색적인 만남이다.

동해안의 맑은 밤공기 속에서 펼쳐지는 국내의 유명 불꽃팀의 경연, 그 놀라운 판타지를 만나볼 수 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 '2024-2025 문화관광축제'에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2월 18일 전국 1200여 개의 지역축제 중 포항국제불빛축제를 포함 전국 대표 축제 25개를 '2024-2025 문화관광축제'로 최종 지정했다.

21개는 '2020-2023 문화관광축제' 33개 중에서 재지정됐고 고령 대가야 축제 등 4개 축제는 신규 지정됐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2019년 유망축제로 지정된 후 포항의 '불'과 '빛'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담은 다양한 콘텐츠와 국내 최대국이 참여하는 국제 불꽃쇼 등을 통해 그 우수성을 인정 받아 왔다.

시는 이번 문화관광축제 재지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2년 간 국비를 지원 받게 됐다. 문화관광축제 명칭 사용과 축제 콘텐츠 개발, 홍보 마케팅 등도 지원 받는다.

포항국제불빛축제는 국내 3대 불꽃축제라는 명성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하는 '2023-2024 한국관광의 해 K-컬처 관광이벤트 100선'과 '대한민국 밤방곡곡 100선(야간관광 100선)'에도 선정된 바 있다.

POSCO의 야경과 경북도 포항시의 해돋이가 배경인 이 축제는,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진행되는 점진성을 높였다.

시는 지난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포항국제 불빛축제 최종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강덕 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보고회는 축제 주관인 포항문화재단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축제 관련부서 및 포항북부경찰서, 포항남·북부소방서, 포항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함께 축제 준비 추진 현황 및 최종 보안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시는 포항국제불빛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축제프로그램 안전성 보완 △축제장 사전 안전점검 △교통 대책 수립 △근무인력 배치 및 운영 △각종 행정사항 지원 등 모든 관련 분야에서 체계적 점검을 통해 관람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축제를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행사가 야간에 개최되는 만큼 유관기관 합동 종합상황실을 운영, 실시간 안전 문자 중계, DJ폴리스(인파관리용차), 현장 LED 화면을 통한 안전 홍보 등에 총력을 다한다.

이강덕 시장은 "올해 포항국제불빛축제를 찾는 관람객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며 "남은 기간동안 세심한 축제 준비를 통해 포항 대표 축제의 진면목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2024 포항국제불빛축제'는 오는 31-6월 2일까지 3일간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열린다. 축제의 첫날인 31일에는 특별한 '불'과 '빛'의 공연이 준비돼 있다.

국내 정상급 파이어 퍼포먼스팀이 선보이는 '불도깨비 공연'과 화려한 '융복합 라이트 퍼포먼스'에 이어 '데일리불꽃쇼&불빛드론쇼'로 포항밤바다를 빛으로 꽃피운다.

축제의 주 무대는 6월 1일에는 1000대의 불빛 드론을 활용한 대규모 '불빛드론쇼'와 함께 해외 3개국(영국·호주·중국)이 펼치는 '국제불꽃경연대회', 영일교·포스코야경과 어우러진 축제의 하이라이트 '그랜드피날레(한국)'가 포항의 밤

하늘을 밝게 비추며 관광객들의 마음을 화려한 '불빛'으로 수놓는다.

축제의 마지막 날인 2일에는 메타코미디 송하빈, 김동하와 함께하는 현장토크쇼 '영일대 청춘 토크(talk)쇼'와 이석훈, 우디의 감미로운 멜로디로 감성을 적실 '불빛낭만콘서트'에 이어 특별한 빛 연출이 더해진 '데일리불꽃쇼&멀티미디어쇼'가 관객들을 기다리고 있다.

포항국제불빛축제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는 포항문화재단 축제사이트 또는 포항시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포항시 북구청은 2024 포항국제 불빛축제 기간 중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화장실 개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북구청은 축제 기간 중 인파가 집중되는 영일대해수욕장과 설머리물티지구 해안 일대의 위생업소 25개소를 지정해 '열린 화장실'을 제공한다.

열린 화장실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부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안내한다.

손 세정제, 화장지 등 위생용품을 비치해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열린 화장실을 개방한 업소에 대해 식품진흥기금 용자 알선과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며 "관광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화장실 개방에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안전·경제·시민 축제로 지역문화 축제 발전의 선도모델을 만들어 해외에서도 주목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정형명 기자

희망특별시 포항

손에 잡히는 경제 희망특별시 - 푸르고 편리한 환경 희망특별시 - 내 삶이 즐거운 복지 희망특별시-로 더 큰 포항을 향해 새롭게 도약합니다!

<p>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다변화 3(이차전지·바이오·수소) + 1(철강고도화) ○ 일자리 1,000개 창업, 10,000개 양질 일자리 ○ GRDP 2018년 18조 → 2030년 30조 ○ 관광 1,000만 관광시대 완성 	<p>지속가능한 생태환경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웨이 3대 프로젝트 완성 ○ 도시재생 3대 재생사업 완료 ○ 생태하천 4대 하천복원 	<p>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육아 공공지원 및 인프라 확대 ○ 체육 집 앞 5분거리 생활체육 인프라 구축 ○ 재난 선제적 예방과 신속한 복구체계 완성 ○ 문화예술 인프라·프로그램 확대
---	--	--

한동해 경제수도 도시
친환경 생태 도시
100세 행복도시



대한노인회 구지면분회, 장학기금 300만 원 기부

대한노인회 구지면 분회는 지난 10일 (재)구지면장학회에 장학기금으로 300만 원을 기탁했다. 노인회 구지면 분회는 구지면 내에 학생들의

꿈을 지지하고 응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구지면장학회의 운영 취지에 공감해 장학기금을 기부하게 됐다. 박병록대한노인회 구지면 분회장은 "이번 기부

가 학생들에게 더 많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방종영 (재)구지면 장학회 이사장은 "대한노인회 구지면 분회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관심이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조여은 기자

다양한 소재 활용 모빌리티 산업 적용 솔루션 제시한다

Agenda.

시간	주제	주최/진행
13:00-13:05	Welcoming Speech	박병록 회장
13:05-13:15	Introduction Speech	방종영 이사장
13:15-13:30	3D 프린팅의 미래	이정호 대표
13:30-13:45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적용 사례	이정호 대표
13:45-14:00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적용 사례	이정호 대표
14:00-14:15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적용 사례	이정호 대표
14:15-14:30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적용 사례	이정호 대표
14:30-14:45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적용 사례	이정호 대표
14:45-15:00	3D 프린팅을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 적용 사례	이정호 대표

HP, 경북대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HP와 경북대학교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이 손잡고 새달 5일 오후 1시부터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5층 청담홀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HP 3D프린팅 솔루션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에서는 HP 3D프린팅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모빌리티 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살펴본다.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의 역할을 소개해 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돕는다. 올해,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은 국내에서 유일

하게 HP Jet Fusion 5210 장비에 PP(폴리프로필렌)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도입했다. 기존에 있는 HP Jet Fusion 4210 장비와 HP Jet Fusion 5210 장비는 연결 소재인 TPU와 고강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폴리아미드 12(PA12)를 사용할 수 있다. 다양한 소재를 활용, 모빌리티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세미나는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박재현 부장의 기술원 소개 △첨단정보통신융합산업기술원 주장은 팀장의 HP 3D프린팅 재료별 모빌리티 활용 방법 제안 △HP 김태화 매니저의 최근 출시된 HP Jet Fusion 5600과 자동화 시스템인 Automation BB8에 대한 발표가 있다. HP 이주현 매니저가 탄소 절감을 목적으로 출시된 PA12와 PA12S 신재료를 소개, 지속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가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세미나는 3D프린팅을 활용한 모빌리티 산업과 지속가능성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HP 김태화 매니저(taehwa.kim@hp.com)에 문의할 수 있다. 세미나 사전등록은 <https://forms.gle/ZgQ4Ny4dHNeJG3sL6>로 하면된다. 조미경 기자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한국뷰티산업 한 눈에

17일부터 19일, 3일간 엑스코에서 개최 대한민국 대표 뷰티 전문박람회로 성장

대구시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엑스코 사관에서 제11회 대구국제뷰티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 11번째인 이번 박람회는 화장품, 네일, 헤어 등의 뷰티제품 기업 120개사 200여 부스가 참가해 비즈니스 마케팅을 펼친다.

또한 뷰티서비스 인재 양성을 위한 미용 관련 기능경기대회와 참가객들에게 다양한 뷰티 체험도 제공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수출상담회 지원을 위한 국비를 확보해 참가기업들의 해외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해 중국, 베트남 등 기존에 참여해 온 국가를 물론 호주, 프랑스, 캐나다 등 새로운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수출 수주 실적에 큰 해외 바이어를 선별하여 지난해 24개사에서 34개사로 확대 초청해 수출상담회를 17일~18일 양일간 진행한다.

또한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알리바바 티몰 글로벌 입점설명회와 CJ ENM, 롯데·현대홈



쇼핑, 쿠팡, 티몬, 뉴코아아울렛 등 국내 22개사 유통 바이어들로 구성된 구매상담회도 오는 19일 개최한다.

뷰티산업의 최신 트렌드이며 화두인 IT 기술이 접목된 뷰티 테크, 피부 분석 결과에 따른 맞춤형 화장품,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비건 뷰티', 유해 성분을 배제하고 화장품 용기까지 환경을 고려하는 '클린 뷰티' 제품이 주목할 만하며, 대구뷰티수출협의회 회원사, 경북 K-뷰티 공동관, 충북화장품 공동브랜드관 등이 참가해 지역 뷰티산업과 공동마케팅을 추진한다.

또한 올해 처음 시도하는 메이크오버쇼는 17일 권준우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135만 명 유튜브버 Kim Miso, 베트남에서 왔한 Yuna

K-Review가 참여한다.

19일에는 2024 미스대구 후보들이 참가업체를 순회하며 라이브 인터뷰를 하며 참가업체 제품을 소개하고, 1홀 무대에서는 '더지는 뷰티 트렌드'라는 주제로 마케팅 세미나와 참가업체의 신기술 신제품 설명회도 진행한다.

또한 매일 선착순 입장객 100명에게 마스크팩을 증정하는 오픈런 이벤트와 행사장 전경 사진을 찍은 후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 매일 선착순 200명에게 소정의 선물을 제공한다.

5만 원 또는 10만 원 이상 현장 구매하면 구매 당일 선착순 30명에게 럭키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관람을 원하는 분들은 16일 오후 6시까지 '2024 대구국제뷰티엑스포 누리집(<https://www.beautyexpo.kr>)에서 사전등록을 할 경우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선조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뷰티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이번 행사가 참가기업과 뷰티산업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판로 개척과 최신 뷰티 트렌드를 습득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북구, 황금빛 야경 '골든브릿지' 조성

북구 동화교, 동변교가 밤을 황금빛으로 물들여 주변 산책로가 다시 태어났다.

북구청은 동화교, 동변교를 황금빛 조명을 입혀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밤이 더 아름다운 골든브릿지'로 연출했다. 북구청은 2023년 3월부터 추진해 오던 '동화교, 동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완료했다.

동화교, 동변교 야간경관 조성사업은 동화천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야간의 산책로 이용객이 증가함에 따라 교량 주변의 밝고 쾌적한 야간경관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북구청은 대구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하천과 교량의 특성에 따라 화려함보다는 주변과의 조화성에 주안점을 뒀다.

조명의 색온도는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의 3000k로 적용해 하천경관과 조화로우면서도 아름다운 황금빛의 교량 야간경관이 탄생하게 됐다.

야간에 교량 밑에서 쉬고 있던 한 주민은 "산책하면서 늘 쉬어가는 곳인데 평소보다 밝아져



서 너무 좋고 황금빛의 은은한 조명이 수변과 잘 어울려 편안한 느낌이다"며 미소를 지었다.

한편 북구청은 지역주민과 상가변경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변교 하부에 디지털 영상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산책로 이용자들에게 유익하고 재미있는 볼거리도 함께 선사할 계획이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과 주변 상권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들이 가장 걷고 싶은 야간 산책로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키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대구상원고, 개교 101주년 기념 체육한마당

"체인지(體仁智)로 새로운 100년 연다"

상원고등학교는 지난 14일은 개교 101주년을 기념해 1, 2학년이 참여하는 교육공동체 체육한마당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덕체(智德體)에서 체인지(體仁智)로 건강과 인성을 기반으로, 지식을 넘어 지혜를 길러가는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다"라는 주제 아래, 학생자치회 주관으로 개회식부터 폐회식까지 모든 과정이 진행됐다.

체육한마당의 시작은 댄스부가 화려한 공연으로 분위기를 달궜고, 교구인 야구부의 타격과 캐치볼, 럭비부의 경기시범 퍼포먼스로 화려하게 막을 올렸다. 특히 연세가 약 90세인 대선배를 비롯한 동창회 회원들도 교구 체험 경기에 참여해 새로운 100년의 시작을 지켜보는 자리를 더욱 빛냈다.

유진권 상원고 교장은 "지덕체(智德體)의 전통을 이어받아 체인지(體仁智)를 겸비한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수성구, 모범 어린이 79명에게 표창 수여

수성구는 지난 11일 수성구청 대강당에서 '2024년도 모범 어린이 표창' 시상식을 개최해 모범 어린이 79명에게 표창장을 전달했다.

친구들을 배려하고 도와주며 힘든 일을 솔선 수행하는 어린이 28명에게 봉사상을, 다양한 책을 읽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실생활에 활용하는 어린이 14명에게 독서상을 수여했다.

또 항상 밝은 웃음으로 먼저 인사하기를 실천하는 37명 어린이에게는 명랑상을 전달했다.

수성구 청소년수련관 댄스동아리 '익스프레션'이 표창 수상 어린이를 축하하는 댄스 공연을 준비했다.

아울러 포토존을 설치하고 수성구 캐릭터 '뚜비'와 함께하는 사진 촬영 시간을 마련하는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

수성구는 2011년 어린이 칭찬 조례를 제정한 이래 지역 초등학교장, 동장, 어린이집원장, 사회복지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미래 꿈과 희망인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품행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모범 어린이 표창으로 우리 어린이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학업에 충실하기를 기대한다"며 "수성구도 마음돌봄 시설 확충, 수성구형 부모성장교육,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어린이들이 웃음을 잃지 않고 행복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2024년 불로화훼 봄꽃축제 개최

'대박 꽃 활짝 피는 빅세일 페스타' 힐링과 나눔이 있는 불로화훼 봄꽃축제

'2024년 불로화훼 봄꽃축제'가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동구 지저동 불로화훼단지에서 열린다.

'대박 꽃 활짝 피는 빅세일 페스타'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원예작품 콘테스트 △선착순 꽃 나눔 △취약계층 무료 힐링 체험 등을 마련했다.

또 △행사 기간 내 전 품목 15% 할인 △1만원 이상 구입시 봄꽃 증정행사 △불로전 통시장 3만원 이상 구매 고객 봄꽃 증정 등 아름다운 봄꽃을 즐길 수 많은 이벤트도 준비했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꽃으로 힐링하고 나눔으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불로화훼단지 활성화 및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 불로화훼단지를 많이 방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불로동-지저동 일원에 있는 불로화훼 단지는 1985년에 조성됐으며, 대구공항, 팔공산IC 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다. 최근 골목상권 활성화지원사업으로 선진돼 특색있는 골목상권으로 거듭나고 있다. 조미경 기자

대구시, 2024년 식품안전관리 '최우수' 기관상 수상

2년 연속 수상, 전국 1위 영예 남구, 군위군 '우수' 기관 선정

대구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시하는 2024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평가에서 시도 단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13일 기관 표창과 포상금 600만 원을 수상했다.

동 평가는 식품안전관리 향상을 위해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 인프라, 기초 위생관리, 정부 주요 정



책 참여도, 우수사례 등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해 적극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시됐다.

대구시는 △식품위생감시 인력 관리, 현장보고 장비 활용 등 식품안전관리 기반 조성, △지도 점검 및 민원처리 등 기초 위생관리, △유동식품 수거검사 및 식품안전관리 우수사례 등 13개 지표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소비유행 변화를 반영한 '대구로' 등록 배달업소에 대한 집중 관리,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 확대, 감시인력 직무역량 강화, 현장보고 장비 활용도에서 우수함을 인정받아 시도 단위 '최우수' 기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조여은 기자



경주시가 시민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시정 발전에 접목하기 위해 '2024 경주시 행복

경주시, '행복톡톡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톡톡 아이디어 공모전'에 나선다. 공모주제는 시정 발전을 위한 △경제 △문화·관광 △농·어촌 △기타 등 4개 분야로 시정 발전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다.

공모기간은 새달 13일까지다. 경주시민 또는 경주시 소재 학교와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아이디어 제안은 경주시 누리집, 국민신문고,

우편, 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실무부서 검토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중 결과를 발표한다. 선정작은 상장과 함께 시상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공식 누리집 및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25 APEC 유치...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 절대적

경주시, APEC 정상회의 교통편의성 향상 기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를 위해서는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이 절실하다. 경북도와 경주시 등 5개 기관이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해 힘을 모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는 경주발전을 앞당길 마중물 역할과 동시에 국제 마이스(MICE)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 업무 협약을 계기로 숙박 수용능력, 경호안전 등 다방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시도민의 염원인 APEC 정상회의를 경주에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는 향후 보문단지외 최단거리인 포항경주공항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 회의장인 화백컨벤션센터 또는 숙소까지 인력수송에 더욱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난 14일 도청 사립실에서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 한국공항공사 포항경주공항,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2025 APEC 경주 유치 지원과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 운항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북지사, 주낙영 경주시장, 장상길 포항부시장, 장재호 포



5개 기관 대표들이 14일 APEC 정상회의 유치 및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협약 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항경주공항 공항장, 김남일 관광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은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를 지원하고, 유치 땀 포항경주공항 국제선 부정기편을 운항해 APEC 각국 정상과 방문단이 안전하고 원활한 입국을 하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포항경주공항으로 입국하는 국제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모객에도 협력하고 국제노선 개설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으로 국제선이 취항할 경우 APEC 정상회의 기간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에 이어 포항경주공항도 국제노선을 보유하게 된다. 공항활용에 있어서 급격한 기상악화나 일정 변경 등의 상황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하며, 공항 복잡도도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현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신청서를 제출한 경북 경주시,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가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현장

실사단이 3개 후보도시를 방문한다.

도는 이번 협약식으로 선정위원단 현장실사에 앞서 각국 정상 및 방문단의 출입국에 중요한 역할을 할 주요 기관들이 협력기로 함으로써 유치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공항 국제선 항공편 취항을 위해 국토부 지침인 '국내선 전용 공항에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허가 처리지침' 상 국제선 부정기편 취항 요건의 중앙부처(기재부, 문체부, 행자부

등) 승인 요건을 관할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국토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규제개선 과제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5~2029년)에도 의견을 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과 지방시대 균형발전이라는 정부 국정 목표에 가장 부합한다"며 "지방 관광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제한하는 오래된 정부 지침 및 규제가 있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시, 올해 정부합동평가 2년 만에 1위 탈환...

경주시 행정점수는 A+ 최우수 부상으로 1억 5000만원 받아

경주시가 2024(2023년도 실적)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정부합동평가는 전국 지자체의 국정 주요시책 추진 능력과 효과성, 책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능력을 검증하는 평가다. 올해 평가는 6개 국정목표 89개 지표와 도정 역점시책 11개 지표 등 총 100개 지표를 대상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실적을 평가했다.

'탄소소재 부품 기업지원 사업' 탄소산업 활성화 위해 첫 시행

경주시가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인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탄소소재 부품 기업지원 사업'을 올해 첫 시행한다.

이번 수상으로 경주시는 2022년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이후 2년 만에 1위 자리를 되찾게 됐다. 부상으로 확보한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시민들의 건강증진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곧바로 쓰인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국·도정 추진 행정역량 부문이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평가에서 경주시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 산 집행률 △위기청소년 지원 수준 및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 △지역사회 치매관리율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지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문화·교육·경제·보건·복지·환경·농축산 분야에서 정량지표 목표달성률 91%를 달성하면서 타 지자체 대비 압도적인 점수 차이를 나타냈다. 이밖에 △경주 해안길 비치코밍(Beach Combing) △잔반제로 캠페인 등 7건이 정성지표 평가 우수사례로 채택되면서 경북 22개 시·군 가운데 기여도가 최상위로 평가됐다.

시는 2년 만에 다시 1위의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과 관련해 △부시장 주재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정성지표 전문가 컨설팅 △미달성 지표 수시 관리 등 적극적으로 단계별 대응전략을 수행해 온 데 따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사업은 지난 4월 준공한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의 전문 연구 인력과 최첨단 연구개발 장비 14종을 활용해 시제품 제작부터 시험분석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한 One-stop 패키지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경주에 분사, 공장, 연구소 등을 두고 있는 자동차, 고분자 플라스틱 등의 소

재 부품 분야로, 미래 유망 산업에 적용할 탄소 분야에 진입하고자 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재)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누리집이나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경주 외동 소재)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경주시, 제62회 경북도민체전 4위로 마무리...

지난해 종합순위 5위 4위로 유종의 미 거둬



경주시가 구미시 열린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종합(시부) 4위 성적으로 대회를 마무리했다.

지난 10~13일까지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시는 29개 종목에 선수 556명, 임원 258명 등 총 814명의 선수단이 출전했다.

시는 다수의 국가대표 선수를 보유한 우수와 검도에서 각각 1위와 2위를 차지했으며, 레슬링,

유도, 보드빌딩은 전년 대비 2~4계단 상승한 4위의 준수한 성적을 올렸다. 올해 가장 두각을 나타낸 종목은 축구로 전 대회 9위에서 8계단 상승해 종합 1위의 성적을 거뒀다.

새롭게 정식종목으로 승격된 합기도와 승마에서도 각각 3위와 4위를 거두며 선전을 알렸다.

시는 이번 대회에서 상위 순위 종목들은 전년 대비 비슷한 성적을 거뒀으며,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약세였던 축구, 복싱, 보드빌딩, 배드민턴 등의 종목에서 선전으로 종합 4위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도민체전은 22개 시·군 1만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시부 30개, 군부 16개 종목에서 열띤 메달 경쟁을 펼쳤다.

그 결과 시부 우승은 구미시, 준우승은 포항시, 3위는 경산시, 군부 우승은 칠곡군, 준우승은 울진군, 3위는 예천군이 각각 차지했다.

여준기 체육회장은 "내년도 김천시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육대회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희망합니다. Golden City Gyeongju logo and background image of a traditional Korean palace at night.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의성군,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 참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 경운대, 컨소시엄 공동관 운영

의성군이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드론산업 인프라 구축과 홍보를 위해 군정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일부터 3일간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5회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에 김주수 군수가 직접 참가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이 주관한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회'는 글로벌 드론 관계자, 국내 공공기관, 지자체, 드론 기업체 등이 참여해 드론 산업의 기술적 성과와 최신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드론 박람회다.

의성군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됨으로써 이번 박람회에 참가 자격을 갖춰 (주)한컴인스페이스, (주)삼정솔루션, (주)유맥에어, (주)나르사텍, (주)케이제이, 경운대학교와 함께 의성군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지자체 공동관을 함께 운영했다.

의성군은 "드론 활력도시 의성군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과제인 △통합안



티드론 시스템 개발 및 불법 비행드론 대응 체계 실증 △의성군 특화 드론 레저산업 기반 구축 △드론 활용 유해야생동물 포획·관리 시스템 구축 과제 실증사업으로 추진 중인 △상습 결빙지역 드론 활용 염화칼슘 살포△산불 등 재난 감시용 드론 상설 스테이션 운영 실증에 대해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또한 드론 산업 및 인프라 전반과 국가안티드론 훈련장으로 지정된 의성군 드론 비행시험센터 소개, 향후 조성될 고정익 드론 활주로와 드론 산업 총괄 지원 시설 조성 계획 등을 설명하며 드론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는 의성군의 포부를 보였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2024 대한민국 드론 박람

회 참가는 우리군의 드론산업 추진 방향과 비전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으며 앞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및 드론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의성군 드론 산업을 한층 더 육성시키므로써 드론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드론 활력도시 의성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영주시, 시군 종합평가 '도약상' 수상

영주시는 지난 14일 2024년 도정역점시책 시군종합평가 시상식에서 도약상 수상과 함께 부상으로 상사범비 5천만 원을 확보했다.

시는 연초부터 지표별 목표를 적극적으로 설정하고 부시장 주재의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및 실국소장·부시장·지표담당자로 구성된 지표책임제 운영 등을 통한 매월 부진지표에 대한 지속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 우수한 실적을 이뤄냈다.

영주시는 종합평가에서 도정역점시책분야 시무에서 상위를 차지하는 등 모든 분야에서 고르게 우수한 성적을 보였다.

그중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분야의 실적이 좋은 평가를 받아 전년 대비 괄목할만한 상승세를 보여 도약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정부합동평가 6개 분야 89개 항목과 도정역점시책 6개 분야 11개 항목을 반영하는 종합평가로 시·군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자치단체의 행정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한 해 동안의 시정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의미를 가진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2024년(2023년 실적) 시·군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것은 전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이번 평가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우수한 부분은 더욱 내실화해 앞으로 시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 역량강화 연수대회

고령군여성단체협의회는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회원 40명이 참석해 2024년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연수대회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대회는 양성평등 발전을 위한 여성리더의 역할이란 주제로 일상생활 속 성차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 인식개선 필요성에 대한 특강 및 현장학습으로 진행했다.

연수대회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주도하고 화원간 친목과 화합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꾸준한 리더십 교육과 각종 사회활동 참여 등으로 여성 지도자로서의 단결된 힘과 역량을 결집해 "젊은 고령! 힘 있는 고령! 만들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배영백 기자

영주시,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대책회의' 개최 지난 14일 열려

영주시는 지난 14일 박남서 영주시장 주재로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대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는 영주경찰서, 영주소방서, 지역자율방재단 및 13개 협업기능 부서가 참석한 가운데 △전년도 피해 및 복구현황 보고 △2024년 여름철 기후 전망 및 자연재난대책 추진 방침 △13개 협업기능별 대응계획 보고 △협조사항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

박남서 시장은 해당 부서장들에게 집중안전점검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급경사지, 산사태취약지역, 재난 예·경보시설 등 방재시설에 대한 점검·정비를 마쳐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이번 여름철 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를 인명피해 최소화하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확대 지정·관리, 1마을 1대피소 및 마을순찰대 운영 등을 통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 적극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계별 비상근무 기준을 4단계로 조정해 기상특보 전 '비상준비단계(초기대응)'를 뒤 기상상황 모니터링, 재난상황 전파 등 사전 대비에 들어가게 된다.

박남서 시장은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위험 징후 포착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주민 대피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상기 기자

고령군, 도민체전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달빛철도 유치기원 퍼포먼스로 개막식에서 입상상 1위 외...

고령군 선수단이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소기의 성과를 이뤄냈다.

지난 10일부터 개최된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 16개 종목 318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다.

농구 남자 일반부 우승, 배드민턴 종합 3위(여자 청년부 준우승, 여자 장년부 준우승, 남자 장년부 3위), 소프트테니스 종합 2위(남자 청년부 3위, 남자 장년부 3위), 씨름 일반부 2위, 태권도 종합 3위(남자 장년부 3위)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봉화군의회 제56주년 예비군의날

봉화군의회는 지난 9일 예비군 지휘관 나규호, 김태경 2명에 대해 제56주년 예비군의 날 유공으로 봉화군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의회는 책임 지역 수해 재난 복구 작전 활동, 통

바가지요금 NO, 착한가격 YES!

성주군은 성주참외&생명문화축제 기간 중 바가지요금 등 물가안정을 추진하기 위한 민관합동 점검반 구성 및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축제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성주성박 숲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는 축제 행사 시 숙박 및 음식점 등 바가지요금 관련 민원의 지속적인 발생과 축제장 인근 먹거리, 숙박업·요식업 등 주요품목가격을 중점관리하여 건전한 거래질서확립과 물가안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봉화, 민선8기 '찾아가는 열린군수실' 본격 운영

군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다

봉화군은 지난 13일 춘양면사무소에서 군수와 주민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을 본격적으로 운영했다.

이날 열린군수실에는 춘양면민 28여 명이 참석해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생활불편사항, 고충사항에 대해 박현국 군수와 직접 대면 상담을 진

행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수해피해복구, 농로 정비, 체육시설조성 등으로 다양한 분야의 불편사항 해소요구 및 신규사업이 건의됐다.

상담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청취와 답변으로 군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했으며, 현장에서 종결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검토 후 민원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현장에서 많은 군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좋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군민 가까이에서 민원을 경청해 군민과 소통하는 군



착한가격업소의 지원확대를 통한 외식물가 안정, 소상공인 매출증대 및 서민 외식비 절감을 이끌고, 물가안정 종합상황실 수시운영 및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로 물가안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도재훈 기자



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 찾아가는 열린군수실은 지난 13일 춘양면을 시작으로 오는 30일에는 물야면, 그 외 읍면은 순차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선전

전년 대비 3단계 상승 종합 7위 달성

영천시는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에서 선수단이 선전을 펼쳐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구미시 일원에서 펼쳐진 도민체전에는 21개 종목 590명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영천시 선수단은 지난 대회보다 7개 종목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종합 7위를 달성했다.

먼저 육상 종목에서 대회 참가 이후 처음으로 마라톤 종목에서 이재웅 선수(남자 일반부)와 남자 고등부팀이 우승했다.

궁도, 태권도, 승마 종목 또한 2위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골프 종목은 지난 대회보다 5단계 올라 3위에 올랐으며, 산악, 복싱, 검도, 수영, 볼링 종목도 우수한 성과를 달성해 순위 상승에 큰 건인차 역할을 했다.

지난 13일 폐회식에선 영천시가 시무 '성취상'을 받으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박봉규 영천시체육회장은 "큰 부상 없이 대회를 잘 마무리하고 우수한 성적을 거둔 선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내년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체육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참가한 선수단 모두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와 함께 스포츠 도시 영천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여줬다"며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신 선수들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야심차게 응원하고 지원해 준 영천시체육회와 참가 종목단체장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최은하 기자

100세 운동법

'좋은 운동'수영... 하루 2시간 넘지 말기

1시간 동안 수영...자전거 두 배 많은 약 700칼로리 소모 다이어트 효과 크다

편집자주 건강에 운동만큼 좋은 것이 없다지만 모든 운동이 건강에 다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다.

몸에 해가 되는 줄도 모른 채 무작정 땀만 흘리는 사람들도 적잖다.

운동, 제대로 알고 해야 한다.

물속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되는 수영은 에너지 소비량이 큰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다. 물의 저항을 온몸에 받기 때문에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해 단련할 수 있다.

부상 위험이 적으면서 건강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지루하지 않은 운동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많은 사랑을 받는 스포츠다.

아무래도 '물'이라는 장소의 제약이

있지만 최근엔 각지에 다양한 수영장 시설이 있어 접근성도 용이해졌다.

누구나 지역 체육센터를 찾아 손쉽게 물살을 가를 수 있고, 유소년도 키즈수영 업체를 통해 해염시킬 수 있다.

■운동 시간 늘리는 것보다 효율성 높여야

대표적인 '좋은 운동'으로 꼽히는 수영의 장점은 상당히 많다.

폐 기능을 강화해 심혈관계 질환 위험률을 떨어뜨리며, 온몸의 긴장을 풀어줘 근육을 이완시키고 피부도 매끄러워질 수 있다.

1시간 동안 수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자전거를 타는 것보다 두 배 많은 약 700칼로리를 소모해 다이어트 효과도 크다.

실내 수영장을 찾으면 날씨에 구애 받지 않고 사계절 내내 할 수 있다.

수영은 하루에 2시간 이하로,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것이 좋다.

규칙적으로 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수영 국가대표 출신으로 아마추어와 엘리트 수영을 모두 지도한 신형수 코치는 "물속에서 하는 수영은 감각이 중요한 운동이다.

몸이 좋은 감각을 잃지 않은 상태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지속해야 (기량 등이) 좋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영 국가대표는 훈련할 때 한 번 물에 들어가면 6000m를 헤엄친다. 많게는 오전과 오후에 걸쳐 하루 두 차례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일반인이 전문 수영선수처럼 많은 운동량을 한다고 해서 기량이 향상되는 건 아니다.

신 코치는 "운동 시간보다는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루 최대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말했다.

수영은 체력 소모가 심하기 때문에 틈틈이 충분한 휴식도 필요하다.

매일 수영하는 것보다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몸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다.

수영을 마친 뒤에는 30분 안에 초코우유, 바나나 등 단백질 에너지를 섭취해 근육을 빠르게 회복해야 한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을 피하고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미온수를 마셔주는 것이 좋다.

■자유형은 글라이딩, 배영은 물리에 신경 써야

수영은 기본적으로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 등 네 가지 영법(泳法)이 있다.

초급자가 체육센터에 가서 수영 강좌를 신청할 경우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영법은 자유형이다. 크롤 영법이라고 불린다.

자유형은 힘과 속도감이 뛰어나고 배우기도 쉽다.

모든 영법의 기본으로 배영, 접영 등을 배울 때도 도움이 된다.

자유형을 잘하려면 팔을 입수한 다음에 어깨를 앞으로 밀어 내는 동작인 글라이딩이 중요하다.

신 코치는 "글라이딩을 잘해야 안정적인 호흡을 할 수 있고, 무게 중심이 잘 돼 반대편 팔이 추진력의 방향성을 만들어낼 수 있다. 글라이딩 할 때 머리가 수면 위에 나와 있어 호흡이 편한 배영은 자유형을 거꾸로 한다"고 말했다.

코와 입이 수면 위에 나와 있어 호흡이 편한 배영은 자유형을 거꾸로 한다

턱을 가볍게 끌어당겨 머리의 각도를 30도 정도 올리고 엉덩이를 너무 내리면 안 된다.

배영의 핵심은 롤링 동작으로, 몸통의 회전을 통해 물의 저항을 줄여 스트로크의 가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몸통을 좌우로 번갈아 45도 돌려 어깨가 턱 가까이 와야 하고, 이때 몸의 축이 되는 머리가 흔들려선 안 된다.

같은 타이밍에 한 손은 입수, 한 손은 피니시를 해야 한다.

'개구리헤엄'이라고 표현하는 접영은 물의 감각을 익히기에 좋다.

호흡이 자유롭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영법으로서 장시간 수영하는 데 효과적이다. 평영을 할 때는 머리를 너무 일찍 들면 안 된다.

신 코치는 "너무 앞만 보고 스트로크를 시작하기 전에 머리를 드는데, 이는 앞으로 나가야 할 타이밍에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다."

머리를 일찍 들면 물의 저항을 받게 돼 하체도 가라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예원, KLPGA 두산 매치플레이서 우승 도전

이예원·박현경·이정민·김수지 윤이나 등 64명 맞선 샷대결

이예원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두산 매치플레이(총상금 9억원·우승상금 2억2500만원)에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한다.

KLPGA 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형식으로 치러지는 두산 매치플레이는 15일부터 19일 동안 강원도 춘천시 라테나골프클럽(파72)에서 펼쳐진다.

64명의 출전 선수들은 각 16명으로 구성된 A그룹부터 D그룹까지 총 네 개의 그룹으로 나뉜다. A그룹은 영구시드권자와 2023시즌 상금순위 상위 순으로 구성됐다.

B그룹은 A그룹 이후 2023시즌 상금순위 차상위 16명으로, C그룹은 B그룹 이후의 선수 16명이 속하게 된다.

마지막 D그룹에는 C그룹 이후 2023시즌 상금순위 차상위 선수(60위까지),

투어 우승자, 대회 추천자, 지난주 막을 내린 NH투자증권 레이디스 챔피언십 종료 시점의 2024시즌 상금순위 상위 순으로 출전 기회가 주어졌다.

영구시드권자로 A그룹 1번 시드 안선주는 이재영, 김희지, 김해림을 뽑았다.

안선주는 "A, B그룹에서 뽑은 선수들이 다 어려서 '어린 선수들과 경쟁하게 되겠다. 힘들겠다'고 싶었는데 이제 KLPGA 투어에 얼마 안 되는 같은

1980년대 생인 김해림 선수를 뽑아 다행"이라고 웃은 후 "김해림 선수와 함께 열심히 쳐보겠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 3관왕을 차지한 2번 시드의 이예원은 이정민, 지한솔, 박도은과

대결하며 2주 연속 우승을 노린다.

이예원은 "같이 해 본 언니들이라 재밌게 칠 수 있을 것 같다. 실수를 두려워하기보다 많은 버디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힘들지만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매치플레이 대회이고, 또 좋은 성적을 냈던 기억이 있어 기대하고 있

다. 많은 응원을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가장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으로 보이는 조는 3조다. A그룹의 김수지가 B그룹에서 임희정, C그룹에서는 최민경을, 마지막으로 D그룹에서는 윤이나가 속해 있다.

김수지는 "최민경 선수와는 재작년에 함께 쳐 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 둘은 같이 플레이한 지 오래여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다들 잘 치고, 최근 감이 좋은 선수들도 있어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치겠다"고 다짐했다.

두산 매치플레이만의 기록도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2010년 우승자 이정민과 2022년 우승자 홍정민의 우승에 대한 각오가 남 다르다.

만약 이정민과 홍정민이 다시 한 번 매치플레이에 오를 경우, 2012년과 2017년 우승자 김지영2에 이어 다승자 반열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이정민은 참가 선수 기준 최다 출전 기록, 최다승 기록, 루키 우승 기록, 최다 우승자 및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 등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또다시 우승할 경우, 역대 최고령 우승자에도 이름을 올리게 된다.

박현경도 강력한 우승후보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기준 최다 승리를 보유하고 있는 박현경은 1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통산 승률이 73.33%에 달한다.

2위는 2022년 챔피언 홍정민으로, 2개 대회서 10승 2무 2패(승률 71.43%)를 기록하고 있다.

13번 홀(파3-177야드)에서 최초로 홀인원을 기록한 선수에게는 더블클래스 효성에서 제공하는 6700만원 상당의 '메르세데스 벤츠 The EQB' 차량이 주어진다.

6번홀(파5-537야드)에서 최초로 알바트로스를 만들어낸 선수에게는 현금 500만원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김천상무, 무패행진 이어간다

제주와 홈경기 2연승·8경기 두 번째 맞대결 치른다...



김천상무가 올 시즌 제주와의 두 번째 맞대결을 치른다.

김천상무프로축구단은 18일 제주유나이티드와 '하나은행 K리그1 2024' 13R 홈경기를 치른다.

김천상무는 지난 7R 2대 0 승리 기록을 살려 제주전 2연승과 8경기 무패행진을 다짐했다.

김천상무는 지난 6R부터 3승 4무로 7경기 무패행진을 달리고 있다.

김천상무의 K리그1 최다 무패행진이지만, 최근 3연승 무승부로 인해 만족스럽지는 않다.

지난 대전전 무승부에 이어 인천전은 2대 0으로 앞서다 2골을 내주며 다시

무승부에 그쳤다. 최근 울산전 역시 무승부 경기를 마쳤으나, 강호 울산을 상대로 지지 않는 경기를 한 점은 긍정적이다.

이제는 지지 않는 경기를 넘어 무승부 사슬을 끊기 위해 승리를 각오하고 있다.

제주와의 올 시즌 첫 맞대결 기억을 살린다면 충분히 승점 3점을 쌓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천상무는 지난 7R 제주 원정에서 시종일관 경기를 지배하며 김현욱과 강현묵의 골로 2대 0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

점유율과 슈팅 숫자 등 경기 지표에서도 모두 제주를 압도했다.

선수단 컨디션도 좋다.

크고 작은 부상이 있던 김민준, 김진규, 김현욱이 지난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다.

최근 출전 시간을 늘리며 경기력을 끌어올린 김대원은 2경기 연속골을 넣고 3경기 연속골에 도전한다.

김태현도 울산전 환상적인 중거리 골로 김천상무 데뷔골을 넣는 등 자신감이 올라왔다.

김천상무는 지난 맞대결 승리와 선수단 컨디션을 바탕으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김천상무는 이번 홈경기를 맞아 'FAMILY DAY' 콘셉트로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무엇보다 가족의 달과 어울리는 이벤트가 눈에 띈다.

먼저 사연을 통해 선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시축과 에스콧'을 시작으로, 가족이 함께하는 골든벨, 평소 애용했던 말을 전하는 '하프타임 사연 소개' 등이 진행된다.

첫 주말 야간 홈경기에 어울리는 관중대상 증정 이벤트도 있다.

경기장 출입 게이트에서 전 관중 대상으로 응원 시 사용할 수 있는 '휴대폰 플래시 스티커'와 구단 물티슈를 증정한다.

행사 부스에서는 김천상무 엠블럼과 비전CI 등이 있는 관박이스티커 5종과 선착순 500명으로 강원북 선수와 김민준 선수카드를 배부한다.

5월 홈경기를 관람하고 추천으로 친필사인 유니폼과 백구를 받을 수 있는 출석체크 스탬프 이벤트와 나만의 슈팅 색상 이벤트 예선을 통과한 BEST 슈팅 행사가 진행된다.

경기 시작 전에는 김민덕 선수 프로통산 100경기 기념 시상식 및 이벤트와 승리 시 운영되는 '승리의 카니발& 펍(구단 공식 맥주 'GIMCHEON2021' 1000원 및 핫도그 할인 판매)'이 운영된다.

이날 경기는 JTBC G&S와 쿠팡플레이에서 시청할 수 있다.

안동하회탈배 전국 3쿠션 당구대회 개막



'2024 안동하회탈배 전국 3쿠션 당구대회'가 15일 안동시 안동체육관에서 개막했다.

시에 따르면 새대안당구연맹이 주최하고 경상북도당구연맹, 안동시당구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올해 신설된 대회로 오는 19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국내 랭킹이 반영되는 전국 규모 당구 대회로, 국내 최강 전문체육선수 및 생활체육선수 등 1200여 명이 참가한다.

경기는 전문체육선수부와 생활체육선수부로 나눠 개인전 및 복식전으로 치러진다.

개개인에게 부여된 점수에 먼저 달성하는 선수가 승리하는 캐뎀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가 최선을 다해 후회 없는 경기를 펼칠길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당구가 대중 스포츠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